

## 毛遂自薦 [모수자천]

[ 터럭 모 / 이를, 마침내 수 / 스스로 자 / 천거할 천 ]

☞ 자기가 자신을 추천함.



[출전]: &lt;사마천&gt; 「사기」

[내용] 중국 고대 전국시대의 조나라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왕족이었던 공자 평원군은 어진 성품에 빈객을 좋아해 당시 조나라의 재상까지 맡으면서 수하에 수천 명의食客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쪽의 강한 진나라가 동쪽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 오고 있던 차에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포위를 당하게 되자 조나라는 남쪽의 초나라와 합종책으로 연합을 하기 위해 초나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평원군이 그 협상의 사신이 되어 출국하게 됩니다.

평원군은 함께 떠날 용기 있고 문무를 겸비한 인물 20여명 뽑았습니다. 그런데食客들 가운데 19명을 뽑고 한 명을 더 뽑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 모수라는 사람이 앞에 나서면서 자신을 데려가라고 자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평원군은 모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진 선비의 처세란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끝이 보이기 마련인데, 자네는 나의 문하에 기거한지가 삼 년이나 지났는데도 내가 아직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모수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일찍 주머니 속에 넣어 주셨다면 비단 송곳 끝만 보이겠습니까? 송곳 자루까지 모두 내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언장담하는 모수의 말을 믿고 평원군은 모수를 일행에 가담시켜 초나라로 들어갔고 부진한 협상 테이블에 과연 모수가 뛰어올라 초왕을 꾸짖으며 뛰어난 언변으로 합종의 협상을 단판 짓고 혈맹의 의식으로 서로 돌려가며 희생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원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시는 선비의 관상을 보지 않겠다. 모 선생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으니 말이다. 모 선생의 무기는 단지 세치의 혀였지만, 그 힘은 정말 백만의 군사보다도 더 강한 것이구나.” 그리고는 모수를 상객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출처: 사이버백과] ◀